

급성 A형 간염으로 인한 급성 신손상 이후 나타난 급성 심근염 1례

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신장내과

한 상 응 · 김 호 중

Acute Hepatitis A with Acute Renal Failure Occur Myocarditis, A Case Report

Sang-Woong Han, Ho-Jung Kim

Division of Nephrology,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

배 경: 급성 A형 간염의 합병증으로 급성 신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. 국내에서 208명의 급성 A형 간염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 문헌에 따르면, 12명 (5.7%)에서 급성 신손상이 동반되었고, 이중 8명은 혈액투석이 필요하였다. 급성 A형 간염으로 인한 급성 신손상이 나타난 이후 급성 심근염이 발생한 경우는 매우 드물어 현재까지 국외 1례만 보고되어있다. 본 저자는 급성 A형간염으로 인한 급성 신손상으로 투석치료를 시행한 환자가, 회복기에 급성 심근염이 발생한 증례를 경험하였기에,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.

증 례: 기저 질환 없었던 31세 남자환자로 타병원에서 급성 A형간염 진단받고 5일간 보존적 치료 중 소변량이 150 cc/day로 줄어들고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7.6 mg/dL 까지 상승하여 본원으로 전원되었다. 환자는 입원 중 혈중 크레아티닌이 16.1 mg/dL 까지 상승하여 혈액 투석 치료 시작하였고 투석 시행 10일 경부터는 소변량 증가와 함께 신기능 회복추세를 보였다. 입원 21일째에 갑작스런 안정시 흉통이 발생하여 시행한 심전도에서 전흉부에 T-파의 음전이 관찰되었고 심장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을 배제하였다. 심장 자기공명조영술에서 좌심방 비대 및 심근의 비균질한 신호증가를 보여 급성 심근염으로 진단되었다. 환자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복용을 지속하면서 흉통의 호전을 보였고, 투석 중지 후에도 소변 양 잘 유지되고 혈중 크레아티닌 1.1 mg/dL 까지 호전되었다. 현재는 퇴원후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를 유지하며 외래에서 추적관찰 중이다.

결 론: 급성 A형 간염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급성 신손상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급성 신손상 이외에도 급성 심근염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,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시 조속한 진단 및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 위의 증례를 보고하는 바이다.

Key Words: 급성 A형 간염, 급성 신부전, 심근염

Acute hepatitis A, Acute renal failure, Myocarditis